보 도 해 명 자 료
('13. 7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"서비스업종 전기요금 낮춘다"
('13.7.4, 이데일리, 이투데이, MTV, 노컷뉴스, 조세일보 등)

---

1. 기사내용

□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.

□ 전력생산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용(갑)을 현행 산업용(갑)의 요금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,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대신 일반용(갑)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향후 제조업,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, 원가에 기반한 '전압별 요금체계'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

* 2013.1.14일 일반용(을)・산업용(을) (계약전력 300kW 이상) 요금표 우선 통합

□ 따라서, 일반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나, 서비스업종(일반용) 요금을 제조업(산업용) 수준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(02-2110-4660)
성보경 사무관(02-2110-4662)